

---

#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

- 채소류 중심 -

---

2011. 1.



잘 사는 농어촌, 행복한 국민

**농림수산식품부**

Ministry for Food, Agriculture, Forestry and Fisheries

I. 그 동안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.....	1
II. 수급안정 방안 .....	5
III. 유통구조 개선 방안 .....	18
IV. 향후 추진계획 .....	36

# I 그 동안의 추진성과와 문제점

## 1 추진성과

◇ 그 동안 농수산물의 유통문제를 농정의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여건 변화에 맞추어 지속적 개선대책을 추진

\* '94~'97: 유통 H/W 구축, '98~'03: 유통 SW 확충, '04이후 브랜드, GAP 등

□ 산지 영세·소농의 조직화·규모화를 위해 산지유통조직 육성과 산지유통센터(APC) 확충에 집중, 최근 시군 유통회사도 설립

\* APC 확충('10, 318개소)으로 10대 원예농산물(채소, 과수) 생산량의 22.3% 수준을 처리

○ 산지조직의 규모화로 대형유통업체 등과 직거래 비중 증가

\* 매출액 100억원 이상 조직수: ('05) 9개소 → ('10) 31 / 유통업체 직거래율 ('00) 22% → ('10) 40%

□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영도매시장 건설(33개소, 농산물 48%) 및 상장 전자경매 방식 정착(상장경매비율 82%)

○ 시장도매인제 도입('04)을 통해 수집과 분산기능의 일원화

\* 시장도매인제는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역할을 동시 수행

□ 소비지의 공정한 판매 및 가격 선도 기능을 위해 '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(16개소)' 및 '대형 하나로클럽(1,000㎡이상 290여개소)' 설치·운영

○ 최근 농산물 대량 수요처인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직거래 자금 지원을 통한 산지조직과의 협력기반 조성

□ 한편,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한 농협 중심의 계약재배, 관측제도 운영, 자조금제 도입 등을 추진

\* 관련제도 도입 연도 : 계약재배('95년), 관측제도('99년), 자조금제도('01년)

## 2 문제점

- (산지) 생산농가의 경영규모가 여전히 영세하고 산지의 유통조직도 대부분 읍, 면 단위 수준으로 조직화·규모화 진전이 미흡
  - 무·배추 등의 노지채소류의 경우 경영규모가 영세(0.1~0.2ha)하고, 노동력(특히, 수확작업) 부족으로 포전거래 유통 비율이 높음
    - \* 품목별 포전거래율 : 양배추 90%, 대파 80~85%, 가을무·배추 75~80% 수준
  - 산지조직의 핵심 역할이 요구되는 농협은 공동수송에 불과한 단순 수탁위주 사업 참여, 전문성 미흡 등 기업적 경영에 한계
    - \* 농협이 산지수집에서 소비지 출하까지 일괄 취급하는 비중은 20% 내외
- (도매시장) 경매위주의 거래방식으로 거래비용 및 하역비 증가 등 효율성이 낮고, 산지·소비지간 유통환경 변화에 소극적 대응
  - 도매법인은 수수료에만 안주, 중도매인은 불투명한 거래관행 상존
  - 최근 가격폭등 시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보완 요구가 증대
    - \* '10. 9월하순 배추 전일대비 1일가격 상승률: (9.21) 17.7% / (9.25) 17.5% / (9.27) 31.6%
- (소비지) 대형유통업체의 소매시장 집중화가 진전되면서 산지에 대한 불공정거래(할인행사 및 저가납품 강요 등)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, 제재 수단 미흡 및 농협 등의 선도 기능은 미약
  - \* 농수산물소비시장에서의 대형마트/ 농협 점유율: ('09) 19.6% / 9.0%
  - 1인 가구, 시니어계층이 증가하면서 前처리(fresh-cut) 등 신선편이 농산물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,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은 부족
    - \* 신선편이 농산물(박피, 다듬기, 세척 등) 시장규모('09) : 연간 7천억원 수준

### 3

## 최근 배추파동 원인과 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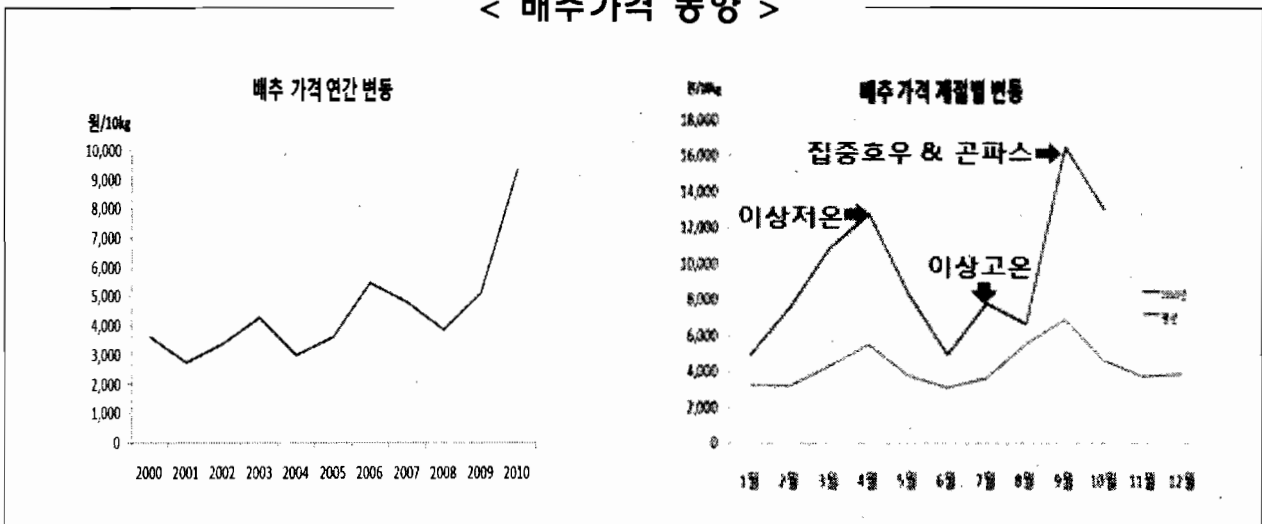
### 1 가격동향

□ 금년 8월하순까지 배추 도매가격은 전·평년과 비슷한 수준, 9월 들어 폭등하면서 9.27일 최고 정점(12천원/포기)에 이름

\* 8월하순 가격: 2,209원/포기(평년대비 16% ↑, 전년대비 14% ↑)

\* 9월하순 가격: 9,414원/포기(평년대비 376% ↑, 전년대비 425% ↑)

< 배추가격 동향 >



### 2 급등원인

□ (기상요인) 여름철 고온 및 잦은 강우와 9월 태풍 곤파스(9.1~3), 추석 전후의 집중호우(9.21~22)로 인한 피해로 생산량 급감(평년대비 23.6% 감소)

\* 강원도 강우일수(8월/9월): ('10) 19일/12.7일(평년대비 5일 ↑/3일 ↑)

\* 강원도 9월 중순 강우량: ('10) 143.9mm (평년 81.0)

□ (재배측면) 여름배추의 재배지는 고랭지 지역(해발 600m 이상)이므로 기상악화 시 수확작업 지연, 병충해 확산이 커 감도가 많아 수량이 감소되어 가격이 급등

\* 고랭지배추는 대체적으로 가격이 높은 경향('01년부터 10년간 4회 정도)

□ (유통측면) 농가는 고령화로 인한 수확인력 부족 및 수확기 가격에 대한 불안으로 산지수집상에게 포전매매를 선호

○ 포전매매 주체인 산지수집상에게 물량이 집중(80%수준)되므로 가격 왜곡의 가능성이 상존

○ 도매시장의 상장경매방식은 가격급등을 가속화

\* 산지수집상 : 전국에 분포하여 산지 농가와 포전거래(발떼기) 방식으로 농산물을 수집·판매(전국수집상 : 약12천명 / 배추수집상 : 약 8천명)

□ (정부대응) 단기간의 가격등락에 대한 위기대응 매뉴얼이 구비되어있지 않아 배추의 수입결정 등 정책 대응속도가 지연

\* aT는 위기상황에 대비한 수입 매뉴얼 및 중국 현지대응 인력 운용에 한계

○ 언론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가수요가 유발되어 문제를 더 악화시킨 경향이 있음

### 3 시사점

○ 기상을 고려한 관측체계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못함

○ 수급 및 물가관리를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의 부재

○ 농협 등 생산자 단체의 계약재배가 가격급등 대처에 취약

○ 도매시장의 거래형태가 가격불안을 조장하는 측면

◆ 소비자, 농어가, 유통주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채소류 수급안정 시스템 구축에 중점

◆ 수급안정 노력과 병행하여 유통비용 감축과, 도매시장 제도 개선 등 유통구조도 함께 점검

## II 수급안정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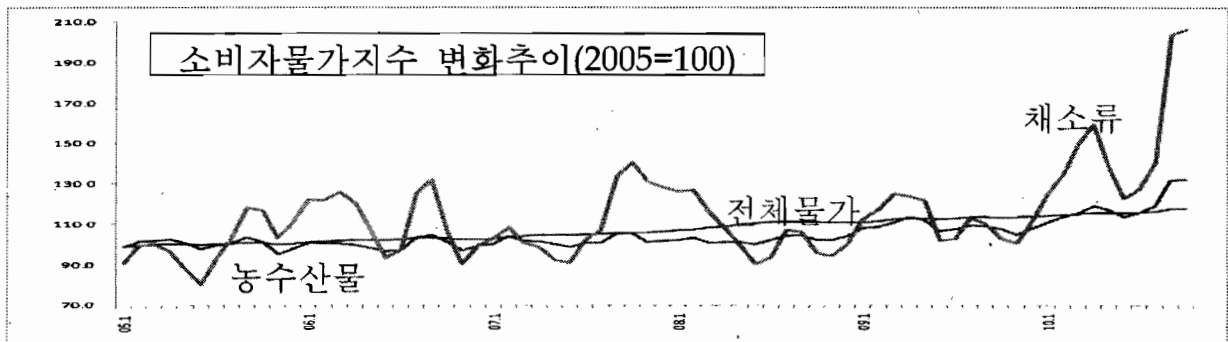
### 1 현황 및 문제점

#### 가 현 황

- (공급구조) 농가의 재배품목 의사결정이 전년도 및 파종기 가격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재배면적이 안정적이지 못하고, 기상여건에 따라 생산량의 변화가 심함

- \* 김장배추 면적 : ('06)30.5% ↑, ('07)15.2 ↓, ('08)20.7 ↑, ('09)1.6 ↓, ('10)6.4 ↓
- \* 김장배추 생산량 : ('07) 1,139천톤 → ('09) 1,583 (38.9%)

- (물가동향) 농수산물의 물가수준은 전체물가와 비슷하거나 낮지만, 기상여건에 따라 채소류의 공급 및 가격 변동성이 커짐



- (수급안정 제도) 농업관측, 계약재배, 비축사업, 세율조정 등을 통해 공급안정 유도

- (농업관측) 38개 농수산물의 예상면적, 작황, 생산·가격전망 등을 매월 분석, 농어가에 제공하여 생산조정 유도

- (계약재배) 농협이 17개 품목 계약재배(소비량의 10% 수준)를 통해 물량을 확보한 후 가격동향에 따라 출하를 조절

- (비축 및 관세조정) 유통공사·수협이 10개 품목에 대해 가격이 낮은 시기에 비축(국산, 수입)후 가격이 높을 때 방출

- 필요시 할당관세를 도입, 관세부담 완화를 통해 민간수입을 촉진

## 나 문제점

- (농업관측) 단기적인 기상이변 등 돌발 상황에 대한 예측기능이 떨어지고, 계약재배 등 수급정책과 연계성이 떨어짐
  - 월보 중심의 관측정보 발행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관측 속보 발행 등 탄력적 정보 제공 기능 미약
  - 계약재배사업 규모가 관측결과와 연계되지 않아 수급조절에 한계
- (계약재배) 공급과잉 시 시장격리를 통한 조절효과는 크나, 부족 시 계약재배를 통해 총 공급량을 늘리는 기능은 취약
  -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농가의 재배의향 면적범위 내에서만 계약재배가 이루어지는 문제
  - 농협의 계약재배 비중이 낮아 수급조절기능이 제한적이고 계약조건도 농가선호방식(포전매매)보다는 농협 편의성에 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짐

\* 포전매매는 계약 20일 이내에 대금 전액 지급, 계약재배는 판매 완료 후 정산
- (비축사업) 비축율(3%)이 낮고, 국내농산물 비축 기능 취약
  - 마늘·고추 등의 농산물은 국영무역에 의한 수입품 중심으로 비축
  - \* 소비량 대비 비축율('09년 기준) : 마늘 3.3%, 고추 3.0%, 양파 1.5% 수준
  - 수입 비축한 농산물의 방출 방법도 공매 등 한정된 방식으로 추진되어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에 한계
- (위기대처 미흡) 예측가격 등에 따른 매뉴얼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상황 대응력 부족
  - 수급문제 발생 후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사전적 위기관리 취약

## 2

## 추진방향 및 정책수단

### 추진 목표

- ◆ 선진화된 종합 수급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채소류 중심의 민생품목 가격 안정화 달성
- (‘11) 배추·무(비저장성), 마늘(저장성) → (‘12) 서민품목으로 확대
  - \* 중점관리 품목, 예의주시 품목, 시장자율 품목으로 구분하여 정책 수립

### 추진 방향

- ◆ 농업관측의 예측 향상 및 계약재배의 실효성 제고
- ◆ 도매시장 거래방식도 수급상황과 연계되도록 개선
- ◆ 수급조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최소화

### 정책 수단

- ◆ 사전적 생산조절 시스템 구성
  - 농업관측 기능 강화 계약재배 사업의 실효성 제고
- ◆ 위기 발생시 긴급수급조정
  - 도매시장의 가격조정 기능 도입
  - 가격폭락시 생산자 경영안정 강화
- ◆ 정부비축 및 수입제도 내실화
- ◆ 김치 등 건조·가공산업 육성
- ◆ 소비자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
- ◆ 가격안정대 및 위기 대응 매뉴얼 운영



## 계약재배 사업의 효율성 제고

□ (계약물량 확대) 안정적인 수급 및 출하조절을 위해 농협의 계약물량을 중장기적으로 50% 수준까지 확대

○ 농협은 현행 소비량의 10% 수준에서 '11년 15%(무·배추 20%) 까지 확대

○ 농협이외의 계약주체를 농수산물유통공사로 확대하여 산지 유통인(법인) 및 농업법인 등과 계약재배 추진

- 수급이 불안한 배추·무에 한하여 '11년부터 시범사업 추진

□ (계약방식 개선) 관측결과와 연계, 공급부족시 적기 대응하고 계약조건도 농가 선호 방식으로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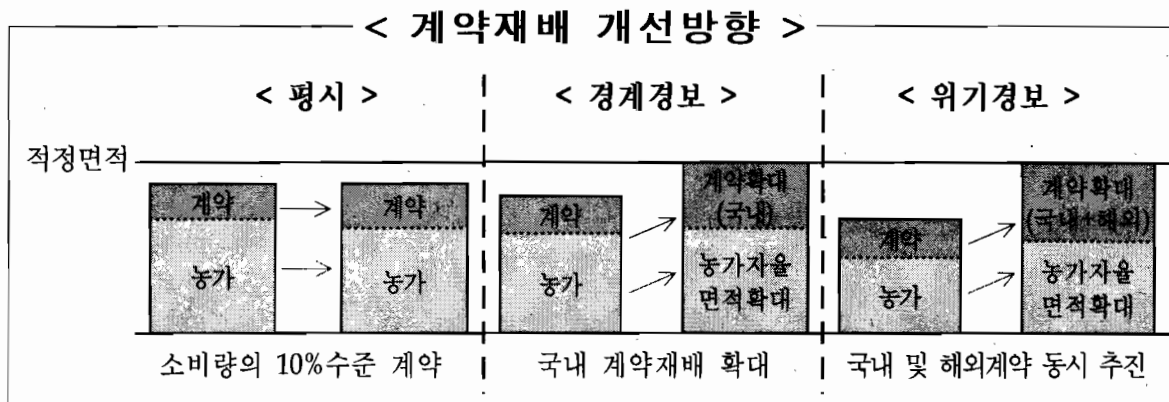
○ 계약재배 규모를 관측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

- 평시 : 기본물량을 계약하고 기상재해 의한 면적 감소에 대비하여 예비묘 공급을 확대(100만주 → 500)

- 경계 : 부족면적의 50%를 국내에서 추가 계약(aT)

- 위기 : 국내 및 해외에서 부족면적의 50% 추가계약(aT)

⇒ 나머지 부족 면적의 50%는 관측 홍보를 통해 농가자율 확대 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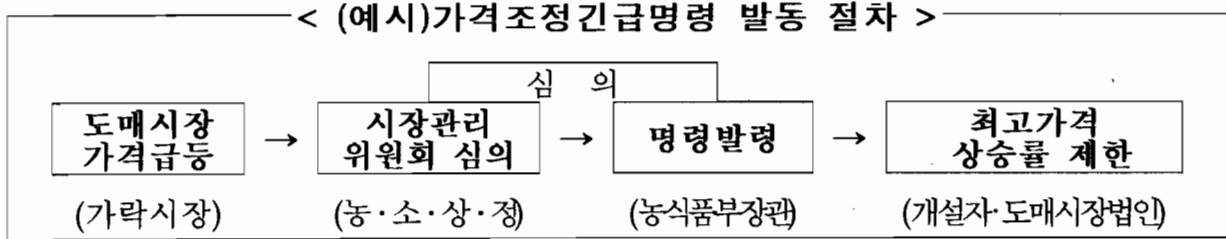


- 농협 계약재배에 **농가가 선호하는 포전매매 방식도 허용**하고, 조합에서 직접 생산관리(고랭지 배추 1만톤)
  - 농가의 안정적 생산여건 제공을 위해 **다년계약제(3년 이상) 도입**
  - 판매능력이 부족한 조합은 농가 계약만 대행하고, **중앙회가 판매 관리**(가을·겨울배추 8만톤)
    - \* 도매사업단을 통한 계통판매 전량 공급 및 군납 등 고정 거래선 확보 추진
  - 조합 손실위험 완화를 위해 산지폐기 비용은 정부가 전액부담하고 **사업손실도 조합과 중앙회가 각각 50% 부담**
- **(자금운용 개선) 사업방식을 다양화하고 품목별·조합별로 구분되어 운용되는 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성 증대**
  - 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합에 지원하던 **운용자금\***을 **중앙회가 직접 운용**하도록 개선
    - 품목별·조합별로 구분되어 사용되는 손실대비 조합 적립금도 **중앙회가 통합하여 탄력적으로 활용**
      - \* 현재는 자금운용 수익을 조합 적립금 계정에 적립, 사업손실 및 산지폐기 등에 활용
  - 조합에 대한 **자금 지원기간을 품목별 생육기간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**(예시 : 가을배추·무 : 11개월 → 6)
    - 저장성 품목의 경우, 판매 완료시점에 자금 전액 회수
  - 계약재배 물량의 출하관리를 위해 **조합별 판매실적**(판매단가, 판매처 등) **보고 의무화**
  - **최저보장가격 제도를 계약재배 농가에만 적용**, 무임승차 방지

## 나 위기 발생시 긴급 수급 조정

### 도매시장의 가격조정 기능 강화

- (가격조정 긴급명령제 도입) 도매시장 경매가격이 투기적 가수요를 유발하는 수준 이상으로 폭등 시 「시장관리위원회」의 심의를 거쳐 일상승률을 제한하는 명령을 발령



- 다만, 관리 대상 품목을 무·배추로만 한정하여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
  - 가격조정에 따른 출하자의 불만에 대한 보완조치로 가격 급락 시 계약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최저 보장가격을 현실화
- (거래방식 다양화)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수의·정가 매매를 활성화하고, 출하예약제 시범도입
  - 정가·수의매매를 경매거래와 동등한 거래방식으로 허용
    - 다만, 출하자(농가)가 매매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여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간의 임의적 거래 방지
  - 출하예약 이행율을 높이기 위해 이행자에 대한 출하장려금 우대지급, 위탁수수료 인하 추진

	현 행	개 선
○ 거래방법	○ 경매원칙 * 수의·정가매매 예외적 허용	○ 수의·정가매매 예외 허용 폐지
○ 출하예약제	○ 미 실시	○ '11년 무·배추 시범 실시

\* 출하예약제: 사전협의를 통해 약정한 시기에 물량을 출하는 방식 / 물량부족 시 계약물량 출하유도

## 가격 폭락시 생산자 경영안정 강화

□ (최저보장가격 현실화) '03년이후 동결해온 최저보장가격은 농자재 값 상승 등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현실화

○ 대상품목은 현행대로 가격의 변동성이 큰 노지채소로 한정  
- 무, 배추, 고추, 마늘, 양파, 파, 당근

○ 최저보장가격의 기준은 품목특성 및 저장성에 따라 이원화

	현행	개선
저장성 있는 품목	경영비 + 자가노력비	현행과 동일
저장성 낮은 품목	경영비*+자가노력비의 30% 이내	현실화된 경영비

\* 현재는 저장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최저보장가격을 실제 경영비보다 낮게 지급

○ 가격수준은 '03년이후 경영비 인상 요인을 반영하여 현실화

\* 가을배추(예) : (현행) 505천원/10a → (변경) 608

\* 가을무(예) : (현행) 405천원/10a → (변경) 588

→ 3개년 평년 경영비를 해당년도 최저가격으로 함

□ (가격하락시 경영안정 대책) 「경계단계」에서는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자율적 시장격리를 추진하고, 「위기단계」에서는 정부 주도로 과잉물량을 시장격리

○ 저장성이 있는 품목 : 최저보장가격으로 수매후 단경기에 방출

○ 저장성이 낮은 품목 : 최저가격으로 가공업체 공급 또는 토양환원

⇒ 계약재배 등 수급조절 정책 참여 농가에 한정하여 최저가 보장

□ (자율적 수급조절 지원) 자조금 단체의 소비촉진 홍보를 적극 지원하고, 가격불안이 심화될 경우 유통명령 발령

○ 대표조직 등의 자율적 시장개척 및 홍보지원(원예 28품목/80억원)

○ 공급과잉 현상 지속 등으로 가격하락이 심화될 경우 출하조절을 강제하는 유통명령을 통해 가격지지

## 다 정부비축 및 수입제도 운영 활성화

### □ 정부비축 강화

#### ○ (비축량 확대)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규모를 확대

- 양념류(고추, 마늘)는 최근 재배면적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하여 비축을 확대하고, 일정 물량을 국내산으로 비축

(현행) 소비량의 3%수준을 수입산으로 비축(고추 3.0%, 마늘 3.3)

(개선) 국내산을 포함하여 소비량의 5%이내 비축

- 비축물량의 판매방식도 원물 구매 중심에서 직판, 반가공 등으로 다양화

#### ○ (엽채류 저장시설 확충) 가격 변동성이 큰 엽근채류의 공급 안정을 위해 소비지 인근의 저장시설을 활용한 비축 추진(aT)

\* 배추 등의 일정량을 비축한 후 이상기상에 따른 출하물량 감소 시 공급

### □ 수입절차 개선

#### ○ (관세율 조정) 위기 경보 시 시장접근물량 증량 및 할당 관세율이 조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제도화

- (현행) 시장접근물량 증량 협의 및 개정절차에 2~3개월 소요
- (개선) 관세인하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간소화(15일 이내)

\* 위기경보 발령시 할당관세 절차 간소화(예: 국무회의 직상정)

#### ○ (수입주체) 민간수입 지연 시 정부 자금을 의한 직접 수입(aT) 추진

## **라 김치 등 건조·가공산업 육성**

- **(필요성)** 1인가구, 시니어층 등장에 따라 소비패턴이 변화하고, 단체급식, 외식업체의 규모 확대로 편이·가공 농산물 수요 증대
  - 현재 부피가 크고, 저장성이 낮은 원물 중심의 소비형태는 유통 단계별 감모율이 높고 수급상황에 따른 안정적 조절이 어려움
- **(소비성향 변화유도)** 채소 소비형태 변화에 상응한 가공 농산물 소비 패턴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
  - 배추의 경우 김치산업 육성으로 신선 가공(김치, 절임배추 등) 및 건조방식 소비의 가속화 유도
    - 김치제조 공정시 소비자 맞춤형으로 가공하여 택배로 공급하는 방안 마련 (김치업체 협조)
  - 소비지의 대형유통업체, 농협의 도매유통센터 등에 가공·건조 농산물 판매 확대 권장
  - 산지 APC에 전처리시설 기능 설치 시 우선 지원
- **(수급안정 활용)** 정부비축시설 및 전처리 시설을 확충하여 김치산업 육성과 수급안정을 연계
  - 배추 과잉시 김치가공업체로 공급하여 묵은지 등 김치로 저장하여 신선채소시장 불안시 가공 농산물로 대체 공급하여 물가 변동성 완화

## 마 소비자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 강화

### □ (현행) 유통공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농수산물 가격정보 제공

- 품목별 조사가격 제공 중심으로 운영되어 구매시기, 가격전망 등 분석 정보 제공이 미흡

\* 농수산물 도·소매가격 : 도매 75품목, 소매 64품목

\* 친환경농산물 소매가격 : 30품목(12개도시, 24개 대형마트)

### □ (개선) 합리적 소비유도를 위한 알뜰 구매정보 제공을 강화하고, 소비자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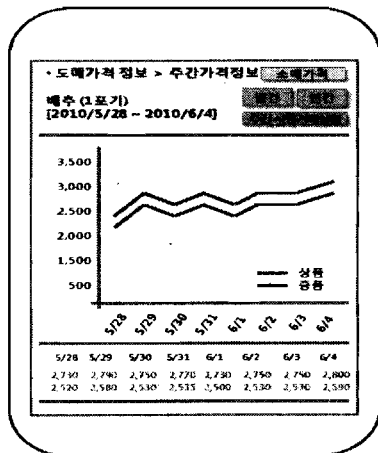
- 조사가격 이외에 시장별 가격 비교, 최적 구매시기, 대체품목의 가격동향 등 분석정보 제공

-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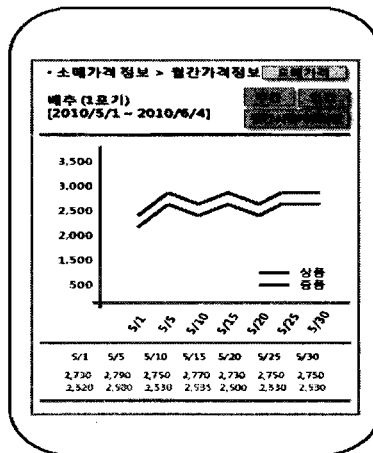
- 스마트폰을 통해 최저가 매장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 보완

### < 정보제공 예시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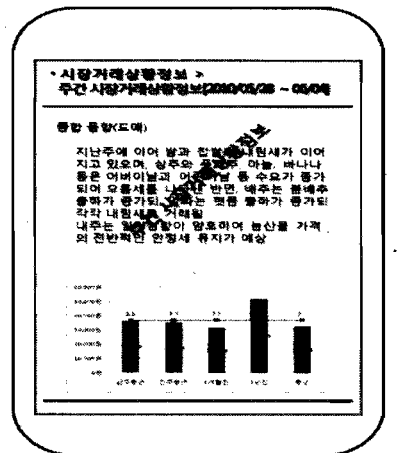
주간소매가격



월간도매가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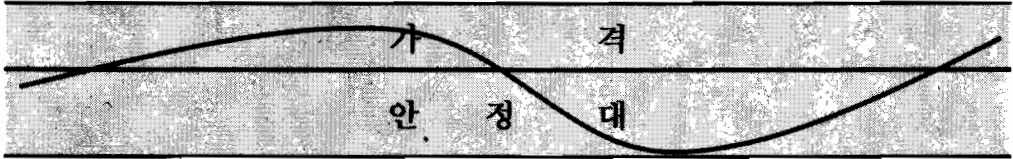
주간가격전망



**바 가격안정대 및 위기 단계별 수급안정 매뉴얼 마련**

- (가격안정대 설정) 평시 가격변동폭 수준의 「가격안정대」를 설정하고, 안정대를 벗어나는 정도에 따라 3단계의 위기 구간(주의 → 경계 → 위기) 설정
- (운영방향) 안정대 이내에서 가격이 형성시 평시대책을 추진하고, 위기상황 발생시 매뉴얼에 따라 대응
  - (파종전~생육기) 농업관측을 통해 출하기 가격을 추정하고, 예측가격의 수준에 따라 「대응경보」 발령
    - 계약재배 확대, 생육촉진 등 사전적 생산조절 추진에 중점
  - (출하기) 실제 거래가격 수준에 따라 「대응경보」 발령
    - ⇒ 대응경보는 전문가 협의를 거쳐 「농업관측센터」가 발령
- (대응 매뉴얼) 주의단계에서는 모니터링·구두개입 등 사전 조치를 강화하고, 경계단계 이상으로 발전 시 즉시 대응조치 실행

**< 예시: 위기단계 및 매뉴얼 >**

위기	소비자 관심 최고조 : 해외물량 도입, 관세인하, 가격조정 명령
경계	소비자 불만 증대 : 계약물량 공급확대, TRQ수입·증량
주의	주의 깊은 관심 : 수입 가능성 조사, 생육촉진, 규격외품 출하
중심가격	
주의	주의 깊은 관심 : 출하자 자율 조절, 작목전환
경계	생산자 불만 증대 : 유통협약, TRQ수입중단 시장격리, 가공용 공급
위기	생산자 관심 최고조 : 유통명령, 과잉물량 가공업체 공급·저장, 소비확대

**참고1**

**단계별 실행방안(배추 예)**

① 파종전 단계

중기관측	대응매뉴얼 (면적조절)	
재배의향조사	부족	<b>위기</b> 해외계약 재배 실시
예산재배면적		<b>경계</b> 계약재배 규모 확대
예산생산량		<b>주의</b> 해외시장 수입 가능성 조사
예측가격 산출	과잉	<b>위기</b> 묘상 폐기 등 물량 감축
위기예보 발령		<b>경계</b> 타 작물 전환 운동전개
		<b>주의</b> 관측정보 제공을 통한 자율감축

② 생육단계

중기관측	대응매뉴얼 (생산조절)	
재배면적, 작황	부족	<b>위기</b> 해외계약 물량 수입계획 수립
예산생산량		<b>경계</b> 해외시장 수입선 사전확보
예측가격 산출		<b>주의</b> 계약재배 물량 출하계획 조정
위기예보 발령	과잉	<b>위기</b> 품목단체 자율폐기
		<b>경계</b> 계약물량 출하계획 조정
		<b>주의</b> 조기수확을 통한 물량 감축

③ 출하단계

단기관측	대응매뉴얼 (공급조절)	
생산량	부족	<b>위기</b> 수입, 할당관세, 도매가격 제한
거래가격		<b>경계</b> 계약물량 조기출하, 할인판매
위기정보 발령		<b>주의</b> 규격외품 출하유도
	과잉	<b>위기</b> 유통명령, 과잉물량 저장·가공
		<b>경계</b> 유통협약에 의한 자체 시장격리
		<b>주의</b> 계약물량중 저급품 출하억제, 수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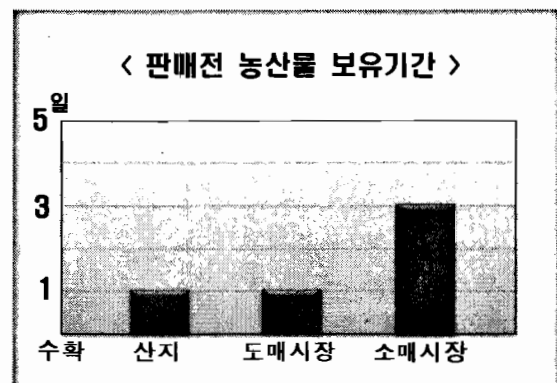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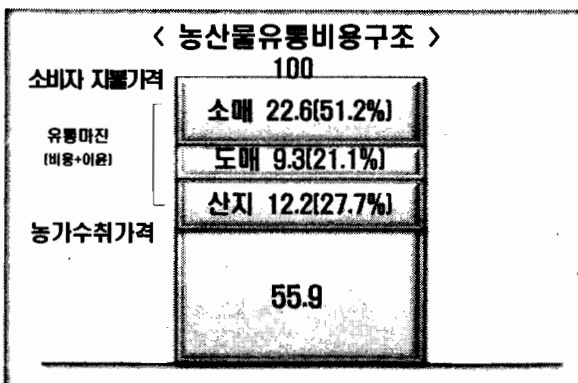
\* 단계별로 세부 대응 및 운영 매뉴얼 마련

### Ⅲ 유통구조 개선 방안

#### 1 현황 및 문제점

##### 가 현 황

- 농산물은 다수의 소규모 농가로부터 수집, 상품화를 위한 선별·포장 등이 불가피하므로 **공산품에 비하여 유통단계가 긴 특성**
  - 유통 4단계: 생산(농가) → 수집, 선별, 포장(수집조직) → 도매 시장(도매법인-중도매인) → 재분류, 판매(소매상) → 소비자
    - \* 품목단계에 따라 중간납품상, 위탁상, 중개상(broker) 등 단계 추가
  - 대형할인점은 원가경쟁 심화로 **산지직거래 구매비중을 높혀가고 있고**, 일반소매점, 재래시장 등은 **도매시장에서의 비중이 높음**
    - \* 최근 식품의 안정성, 웰빙을 강조하는 소비 추세에 힘입어 **생협 중심의 판매 비중이 증가 추세**(생협회원 : '09년 50만명)
- 농산물은 부패가 빨라 저장 등 **관리비용이 크고**, 소매단계에서 상품의 소유기간도 길어 **감모가 많아 유통비용이 높음**
  - 유통단계의 이전(移轉)에 따라 비용 및 이윤이 발생하므로 **단계가 길수록 유통비용이 증가**
    - \* 국내 농산물의 유통비용은 대체적으로 미국,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상황(예, 과채류: 미국 70% 이상, 일본 50% 이상, 한국: 44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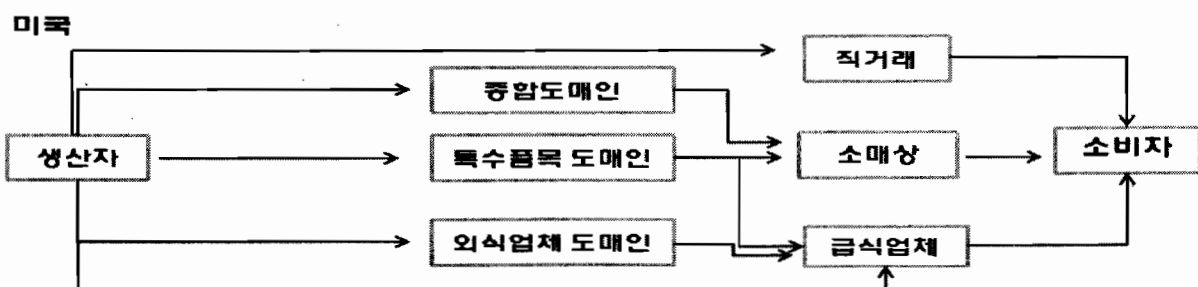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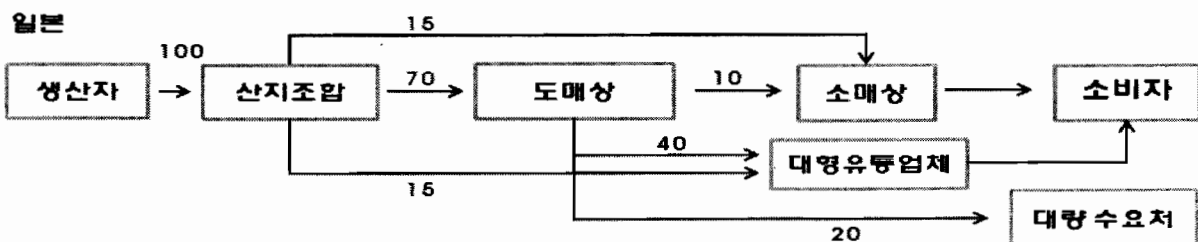


## 나 문제점

- (산지단계) 유통의 효율화 및 시장교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**생산자의 조직화(공동선별, 공동출하 등) 및 규모화가 필수 요건**
  - 농가는 단기의 **소득효과만을 고려하여 품목 및 출하처를 결정**, 특히 수확기 판로, 가격에 대한 불안 및 수확작업의 어려움으로 **산지유통인과 포전거래(밭떼기)를 선호**
    - \* 산지 규모화가 커질수록 외부조직(벤더, 산지수집상 등)이 아닌 농가 자율적으로 수집·선별 기능이 높아 유통비용이 크게 감소
  - 농산물의 **규격화, 파렛트 적재출하** 등 물류체계 개선이 미흡
- (도매시장) 도매시장의 유통주체들이 단순한 판매대행업자가 아닌 **산지의 대리 구매자(buyer)로서 역량강화 필요**
  - 도매법인은 경쟁 제한적 구조에서 수수료 수입에 의존한 채 산지의 **마케팅 지원 기능이 미흡**
  - 유통주체 간(① 농가 ↔ 상장 외 품목 중도매인 ② 농가 ↔ 시장 도매인) **대금정산 및 거래내역이 불투명**
    - \* 도매시장 내 불법 등 비리사고의 대부분이 대금정산 불투명에서 기인
- (소비지단계) 대형유통업체가 증가하면서 업체 간 과열경쟁으로 **불공정거래(가격할인 요구, 대금지급지연 등) 발생 증가**
  - 대형마트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지 직거래 매입비율을 높혀 감에 따라 **산지조직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**
  - 그 밖의 슈퍼, 소규모 식료품점, 재래시장 등도 물류, 시설, 판촉 등이 열악하여 **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**

## 참고 2 | 해외 농수산물 유통사례

구분	생산구조	유통구조	시사점
일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농협 작목반(부회) 중심의 조직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농협계통출하(90% 이상)</li> <li>도매시장 중심 소비지유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매제 이외의 상대매매 및, 예약 상대거래 활성화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농협은 판매책임, 생산자는 생산책임</li> <li>소매유통에 능동대응 위해 도매시장 거래는 경매 위주에서 정가·수익매매 위주로 발전 (80% 이상)</li> </ul>
미국 (캘리포니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규모 개별 농장 생산</li> <li>기계화작업, 수작업은 히스패닉 노동자 고용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농가와 협동조합·민간 유통기업 간 100% 계약재배</li> <li>도매시장은 대규모 도매상 체제, 상대매매</li> <li>대형유통업체는 산지, 도매상과 거래, 일반소매점은 중간상을 통해 도매상에서 조달(한상들 역할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지의 농협과 민간 유통기업 양분 체제</li> <li>계약재배 일반화</li> <li>농작업에 저임 외국 노동자 활용</li> </ul>
서유럽 (프랑스, 네덜란드, 스페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생산자 조직 중심 (협동조합)</li> <li>공동선별·공동판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협동조합 중심 공동판매</li> <li>생산자, 생산자조직의 도매시장 출하, 수출업체 판매</li> <li>도매시장 내 생산자 직판 도매상 운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협동조합 중심 산지유통, 공동판매</li> </ul>



## 2

## 추진방향 및 정책수단

### 추진 목표

- ◆ '15년까지 농협 직거래 물량을 유통량의 50%로 확대
- 현행 5~7단계의 유통경로를 3~4단계로 축소

### 추진 방향

- ◆ 산지·소비지 유통에서 농협 역할 확대
- ◆ 새로운 유통방식을 활성화하여 시장의 자율적 변화 촉진

### 정책 수단

- ◆ 농협 중심의 유통구조 강화
- ◆ 유통주체간 경쟁촉진 및 공정거래 기반구축
- ◆ 신유통방식의 활성화

◆ 대책별 과제는 단기, 중기, 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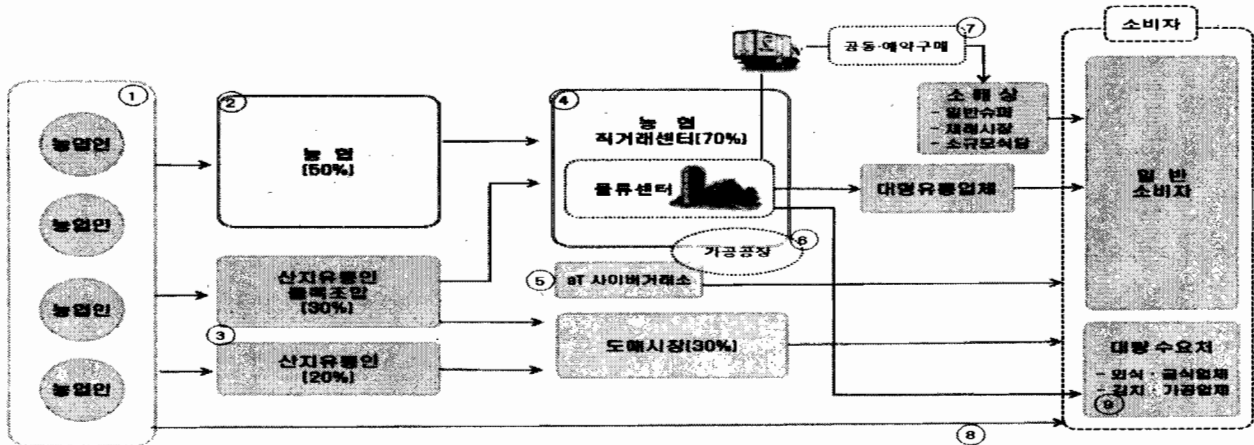
### 3

## 세부 추진방안

### 가

## 유통비용 절감 및 거래방식 선진화

< 유통구조의 개선방향 >



### 1) 산지단계

#### 농협중심의 산지유통구조 강화

□ (안정적 공급) 소비자 유통업체의 요구를 충족할 연중 공급시스템 구축

○ 공선출하회(공동선별·공동출하) 육성을 통해 소규모 농가의 조직화·규모화

\* 공선출하회 개소수: ('10) 1,327 → ('11) 1,400 → ('15) 2,000

- 개별농가 보다는 규모화된 조직 위주로 자금 지원

- 산지유통시설(APC, 저온창고)의 공동이용·통합 조직에 대해 시설 현대화 등 우선 지원

○ 산지 농협마케팅 조직의 상품성 제고 및 마케팅 능력 강화

- 산지농협은 재배, 교육 등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전력

- 생산 농산물은 『전국단위 도매물류센터』로 계통 출하

\* 산지 농협마케팅조직이 전국단위 광역 마케팅조직으로 발전된 조직은 소비자 직거래도 병행

\*\* 사례) K-멜론연합사업단: 12개사업단, 23개 농협, 1287명 농업인 참여, 105억

- (인력육성) 농협 산지유통 전문인력 육성 강화 및 인력운영체계 개선
  - \* 지역조합 ↔ 중앙회로 이어지는 마케팅 전문보직 설정 · 운영

**산지의 자금지원 방식 개선**

- (자금지원 방식) 조합 간 품목연합(조합공동법인 등)을 통해서 주산지 산지 농협들에게 **top-down** 방식으로 지원하여 산지 농협 간 통합 · 계열화 유도, 계통출하 활성화
  - 생산부터 판매까지 산지조직이 중심이 되는 공동계산제 추진
- (사업 간 연계) 별도로 운영되는 APC·원예브랜드육성 · 물류비 (파렛트, 포장재비 등) 등을 조합 간 품목연합 중심으로 지원
  - 물류표준화,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을 단일 세부사업으로 통합·운용하고, 작목반 · 농가단위 지원관행 중단
- (농가참여) 농가의 계약재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 마련
  - 농협과 계약재배를 통해 자율적으로 수급조절에 참여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
  - 농가의 조직화 및 계약재배 필요성에 대한 맞춤형 교육 강화

**산지유통인의 제도화 · 법인화**

-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인단위의 산지유통인을 법인화(영농조합법인 등), 장기적으로 품목전문조합으로 유도('11년 법인화 추진)
  - \* 서남부채소조합(양파, 배추 취급) : '92년 영농법인으로 출발(300여 농가), '98년에 조합신설, 2000년에 중앙회에 등록('10년 매출액: 350억원)

- **법인화 촉진**을 위해 현재 개인 산지유통인 단위로 지원 중인 물류기기(파렛트, 플라스틱박스), 포장재비 등을 **법인 중심으로 지원**
- 산지유통인을 정부의 수급안정 정책 대상에 포함, 자금지원  
- (현행) 매취방식만 자금 지원 → (개선) 포전방식에도 지원

\* 정부자금 지원시 농가와 계약물량을 사전에 제공하게 하여 수급자료로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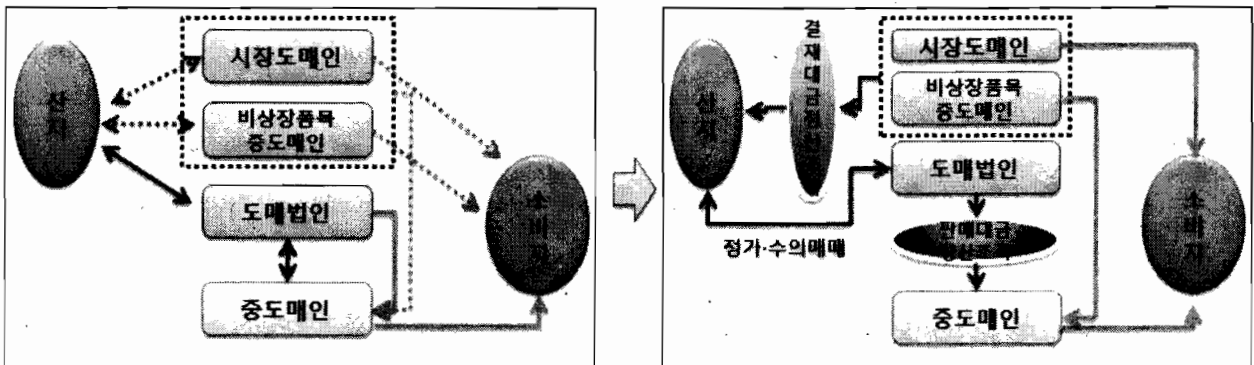
□ 「포전거래계약서」 사용 의무화 등을 통해 농민을 보호하고, 거래 투명성 제고

○ 「산지유통인중앙연합회」를 통해 **신고센터 운영**

○ 표준거래 계약서 사용시 인센티브를 제공(예: 물류 표준화사업비 지원, '11년 179억원)

## 2) 도매시장

< 도매시장 거래개선 방향 >



### 제3의 대금정산조직 신설 및 전자·견본거래 확대

□ (대금정산조직)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, 시장도매인·상장의 품목 중도매인과 출하자 간 **제3의 대금정산조직 신설**(정산조직 신설 용역 추진 중)

**< 정산조직 운영방향 >**

<b>기존</b>		유통인의 거래내역 불투명, 대금지급 지연 발생
<b>개선</b>		거래내역의 투명성, 안전성 확보

□ (전자·견본거래) 전자·견본거래 활성화를 위해 법인 등에게 인센티브 제공 및 상장거래 수입과일의 일정량 이상은 전자거래 의무화를 통한 비용절감, 품질유지 효과 달성

\* 인센티브: 시장사용료를 현행 거래액의 0.5% → 0.3% (0.2%↓) 적용

**시장도매인제 확대기반 마련**

□ 경매절차를 생략하는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한 시장도매인제 확대 기반 마련

- 다만, 대금정산조직 신설 등 투명성 확보조치와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

**하역기계화 및 콜드체인 시스템 확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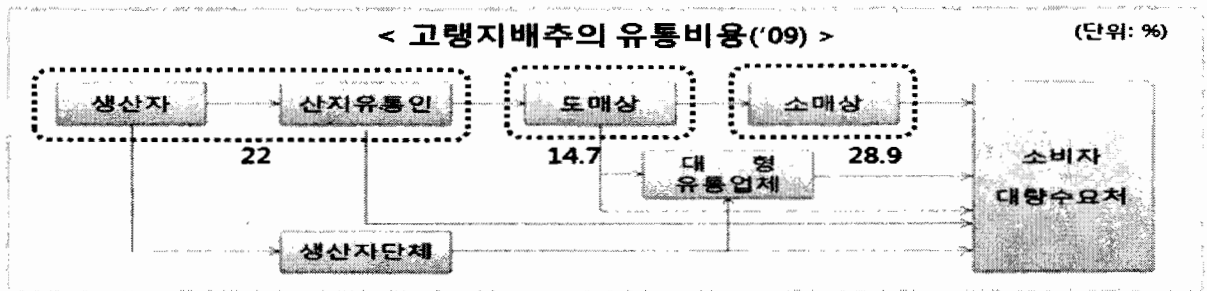
□ (시설 현대화) 도매시장 사업 시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

○ 현행 도매시장은 저온저장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당일 출하량을 모두 처리해야하므로 품질 저하 및 수급기능 부재

### 3) 소비지 단계

□ (현행) 저온저장시설 미비, 상온운송 등으로 농산물 감모 및 신선도 저하가 커 유통비용이 다른 단계보다 많이 소요

○ 소매물류를 위한 물류 및 배송센터가 없어 유통과정에서의 감모·폐기 비율이 높아 농산물 가격이 상승되는 요인



□ (개선) 소비지 물류기능을 강화하고, 소매단계의 유통비용 최소화

○ 소매유통 역할 강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에 「전국단위 도매 물류센터」를 설립·운영

- 농협중앙회가 전국 4개 권역(수도권, 영남권, 호남권, 강원권)으로 구분하여 추진

- '11년부터 수도권(안성)에 「도매물류센터」 건설 추진

○ 소비지의 대형유통업체, 급식·외식업체, 김치 가공업체, 대규모 식당 등을 대상으로 공급망 구축

- 현행 농협중앙회의 도매분사 조직(자체공급 위주)을 도매 판매조직(외부 판로개척 중심)으로 개편

○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등과 연계하여 소매상, 소규모 식당 등을 대상으로 「예약 공동구매 시스템」을 도입, 공급채널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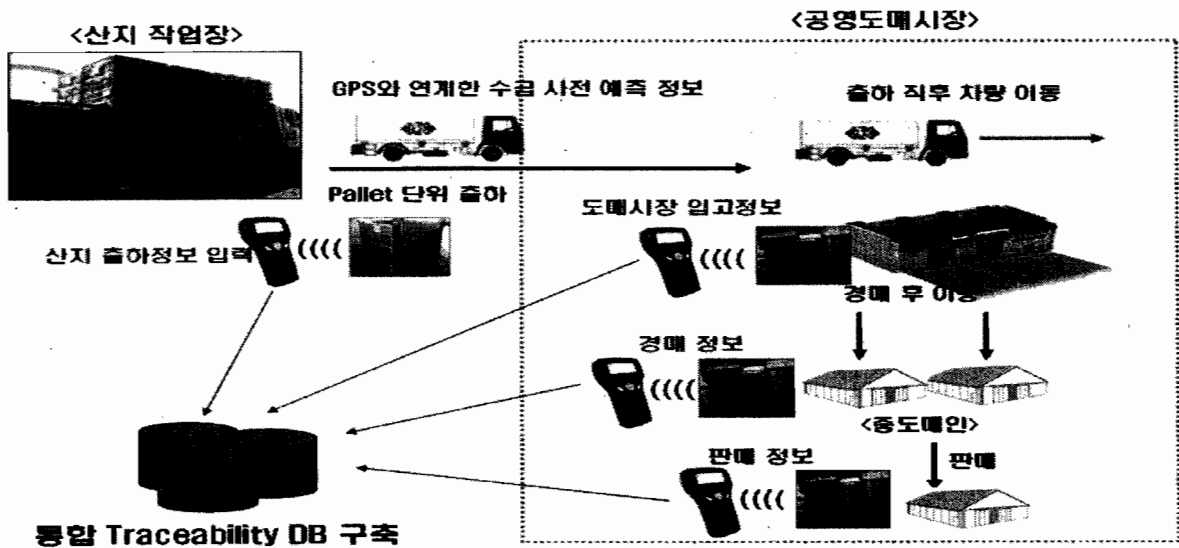
- 공급체계(예): 도매물류센터 → 슈퍼체인본부 → 중소수퍼마켓

#### 4) 운송물류체계

### 물류효율화를 위해 파레트 출하 의무화

#### □ (하역 효율화) 도매시장 내 하차 경매제 도입('12)

- 하차 경매제 도입을 위한 도매시장 경매장 내 랙 시설 설치('11)
- 배추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후('11년) 전 품목으로 확대
  - \* 파렛트 활용 수송차량은 경매장에 지게차로 하차 후 곧바로 현업으로 복귀
  - \* 출하자 요금경감(배추 5톤) : (현행) 1박2일 부담(50~70만원) → 1일(35~50만원)
- 물류기기(파레트, 철제상자, 차량 등) 표준화는 도매시장 하역체계 개선사업 및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



#### □ (물류 선진화) 산지부터 도매지까지 RFID 등 첨단기법의 도입을

통해 물류의 실시간 운영상황 파악, 반입량 자동집계 등 추진

- 산지 출발시점에서 RFID 부착, 도매시장 내 RFID 리더기 설치, 조기정착을 위한 주차료 면제 및 경매우선권 부여 등 추진

## 나 경쟁촉진 및 공정거래 기반구축

### 1) 유통참가자간 경쟁 촉진

#### 도매시장법인 등의 경쟁촉진·규모화를 위해 평가제 강화

- 도매시장 법인 간 경쟁촉진을 위해 제도 개선
  - 도매시장법인 등의 회계검사를 강화하고, 평가대상 범위도 현행 전국단위에서 시장별·권역별로 개선
    - \* 부진 대상 범위 확대 및 평가 결과를 법인 재지정 시 적극 활용
  -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개설자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점포 재배치·허가 갱신시 평가결과를 반영

### 2) 농산물 관련 공정거래 제도

#### 농산물 공정거래 관련제도 정비

- (법제 정비) 우선 「농산물거래 고시」 신설 등 추진
  -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'대규모소매업고시(공정위 소관)'는 공산품 위주로 농산물의 특수성 미고려
    - \* 농산물의 특수성 반영 필요 항목(예시) : 부패 가능한 농산물의 정의, 할인 행사 시 가격·물량 협의, 대금지급 기한 설정, 판촉행사 주기 및 기한설정 등
    - \* 프랑스 : 농촌법과 상법의 상호보완체계로서 상법에 농식품 거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
- (거래관행 점검) 산지유통종합평가 과정에서 대형업체와의 거래 내역(할인행사, 납품가격 등) 제출 의무화
  - 제출된 내역을 분석하여 대형업체의 거래관행을 점검하고 불공정 소지가 있는 사례는 분류하여 공정위에 조사 의뢰
    - \* 산지유통종합평가 : 산지조직 별 정부지원 수준 결정을 위해 매년 산지조직의 경영·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(평가기관 : aT)

##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실효적 수단 강화

□ (산지의 대응력) 생산자가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강화

○ 불공정거래 유형, 신고절차 및 대응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·배포하고 생산자에 대한 교육 실시

□ (공정위 협력체계) 농수산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추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 유도

○ 현재 aT 「공정거래지원센터」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현지조사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참여 정례화(연2회)

○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'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' 평가에 농수산물 유통 전문가 참여 추진

\*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: 대규모 소매업자와 납품업자 간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협약을 체결토록하고 이를 평가하는 제도(공정위)

□ (센터기능 강화) aT에 설치된 「공정거래지원센터」 기능 확대

○ 대형업체의 불공정거래 현지조사 대상을 현행 산지조직에서 도매시장(중도매인) 까지 확대

○ 공정거래 전담인력을 전국 지사별로 배치하여 산지조직에 대한 공정거래 예방지원 및 불공정거래 감시기능 강화

○ 장기적으로 센터를 별도의 전담조직으로 확대·육성

\* 공정거래지원센터 주요 기능 : 농수산물 공정거래 관련 제도 운영, 불공정거래 감시 및 평가, 산지조직 공정거래 지원 기능 등

## 생산자·소비자의 자율적 역할 강화

- (소비자단체 활용)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대형업체의 거래관행을 평가·발표하여 공정거래 정착 유도
  - 대형업체와 거래하는 산지조직에 대한 현지조사, 업체의 거래 관행 모니터링 등을 통해 평가 실시
  - 평가결과는 언론에 발표하고 공정거래 우수업체는 포상을 추진하여 공정거래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 유도
- \* 우수 쌀 브랜드 평가 사례 :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매년 12개 우수 쌀 브랜드를 선정·발표하여 쌀 브랜드의 경쟁력 향상 유도
- (산지협의체 구성)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산지조직을 협의체 형태로 조직화하여 거래교섭력 및 불공정거래 대응력 향상
  - 불공정거래 사례를 공동논의하기 위한 거래업체별 산지조직 협의체를 우선 구성 ('12)
  - 거래업체별 협의체 구성후 연합회 형태로 법인화('15년까지)
  - 물류비·포장비 등 지원 시 협의체를 통한 정부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산지조직의 동참 유도

### < 사례 : 팡이버섯협의회 >

- 구 성 : '00. 2월('09. 11월 팡이버섯 수출사업단 구성), 회원농가 25호
- 주요 사업내용 : 시장출하량 조절, 수출 촉진,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
  - ☞ 유통업체·도매시장 등에 대한 자체 출하조절로 거래교섭력을 높이고, 수출을 통하여 생산자의 판로를 확대(수출액 : '08년 1,126만불→'09년 2,12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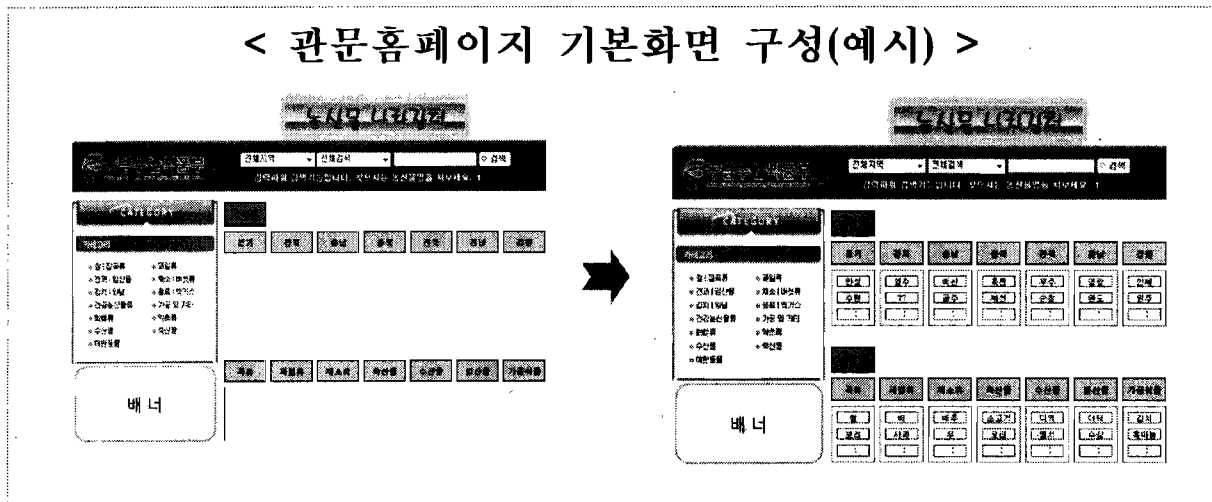
## 다 신유통방식의 활성화

### 1) On-line 직거래시장

#### 직거래사이트 접근성 제고

- (통합 관문홈페이지) 소비자가 한 사이트에서 손쉽게 상품을 검색·구매할 수 있도록 「농산물 나라장터」(가칭) 구축·운영
  - 지역별, 품목별로 검색기능을 추가,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을 판매하는 직거래 사이트를 일괄 검색한 후 선택·구매
- \* 현재 지자체·생산자단체·농가별로 많은 직거래 사이트(2만여개)가 운영되고 있으나, 일부를 제외하고는 인지도가 낮아 소비자의 방문 및 매출실적이 저조

#### < 관문홈페이지 기본화면 구성(예시) >



- (우수 사이트 지원) 사이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통합 사이트에 대한 지원 확대
- 한국사이버농업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농업인 직거래 통합 사이트인 '지줍몰' 활성화
- 사이트 홍보를 위한 홍보비 등 지원

##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운영 활성화

### □ (기업간 거래 확대) 농수산 분야 B2B 활성화로 비용절감 견인차 역할(도매시장 대비 13.75% 절감)

- 참여 업체를 대형유통업체·외식업체·식품업체 등으로 확대, 전문  
구매바이어(MD) 보강, 물류시설, 소분시설 등 인프라 확충
- 산지유통인, 유통업체 구매바이어 등 품목사정에 능통한 인력을  
자문조직으로 활용

\* 사이버거래소 B2B 확대 목표 : ('10) 1,755억원 → ('11) 2,500 → ('15) 10,000

\*\* (사례) B2B를 통해 산지와 유통업체·김치제조업체 간 배추 직거래 : 소매가격  
(6,100원/포기)보다 45% 낮은 3,330원에 공급('10.10월)

### □ (대상 확대) B2B 거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을 단체급식 시장으로 확대

- 학교행정정보망과 연계하여 행정편의와 공정성을 도모하고  
전국 학교의 40% 수준으로 확대('13년)
-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공급량 확대를 위해 계약재배·공동구매  
갖춘 지자체 대상(2-3개소)으로 시범사업 추진

	2010	2011	2012	2013
참여 교육청수	6	10	16	16
참여 학교수	120	1,000	2,500	4,000

- 학교급식 안정화 이후 교도소, 전·의경, 외식업체 등으로 범위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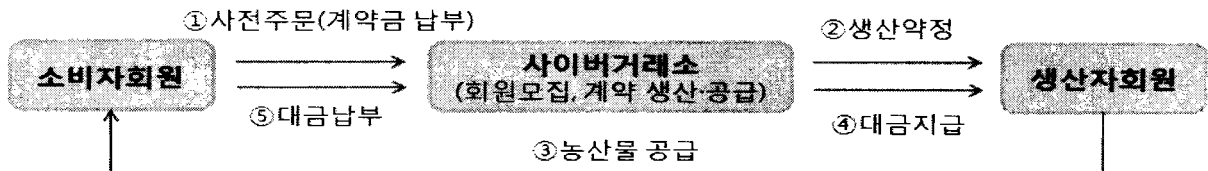
\*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 : 2조7천억원, 초·중·고·특수학교 수 : 11,000여개

### □ (사이버 도매시장) 중장기적으로는 현물 도매시장의 경쟁시장 으로서 역할 및 가격형성 기능 수행

\* 2018년까지 전체 농산물 거래량의 5% 취급 목표

## 생협 방식의 직거래 활성화

- (사전 예약제) 현행 사이버거래소를 회원 중에서 참여 희망 특별 회원에게 연중 일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
  - 시중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은 공급가격 협의 공시



- (계약 대상) 우선 가격등락이 심한 품목(배추, 무, 마늘, 양파 등), 쌀, 김치, 장류 등 연중 소비가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예약거래
  - 공동구매가 가능한 품목은 할인가격으로 일괄구매 후 공급
    - \* (사례) 하선정 김치 : 회원가입한 소비자가 가정에서 연중 소비하는 김치 물량을 할인가격으로 계약체결, 원하는 날짜에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온라인시장에서 인기
- 민간 생협방식의 직거래업체와 직접적인 경쟁 지양

## 2) Off-line 직거래시장

- (직거래 장터 설치) 농업인이 주체가 되고,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중심이 되는 Local-food 개념의 직거래장터 확충
  - \* (사례)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: 원주천 둔치에서 매일 새벽 4:00~9:00까지 운영, '09년 개장일수 234일, 매출액 75억원, 방문객 22만명
  - 수요조사를 통해 도별로 1~2개소 설치('11년) 후 장기적으로 성공한 장터를 모델로 확대 설치 유도
- (우수사례 전파)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거래장터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고, 장터 운영 요령 등 보급
  -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우수사례 공모제를 시행
  - 직거래장터 운영요령, 시설설치 등을 설명하는 매뉴얼을 제작 보급

- (외국사례 연구) 외국의 파머스 마켓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상황에 맞추어 직거래장터에 적용

**< 미국 파머스 마켓 >**

- 운영: 매주 토요일 개장, 인구 20만명 내외의 도시 지역에 개설되며 일반적으로 공용주차장, 도심광장, 각종단체의 시설을 무료로 사용
- 정부역할: 미 농무부(USDA)는 파머스마켓에 대해 ①정보제공, ② 지도, 교육 ③ 운영지원, ④ 시설·기술 지원 등 실시
  - 시장의 운영 및 경향(emerging trends)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 참여농민, 시장운영자, 이해관계자 등에게 정보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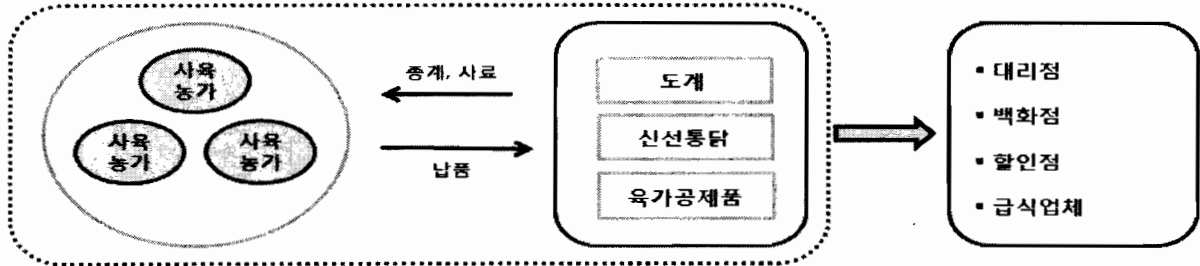
**라 aT의 시장유통기능 보완**

- (가격정보 제공 강화) 등급(상품, 중품)을 고루 반영한 합리적인 사용할 수 있는 대표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일관된 물가 정보 제공
  - 上品가격 사용에 따른 물가 왜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사 및 집계 방식을 개선하고, 조사 인프라를 확충
    - 전국평균가격 집계 시 해당 도시의 인구 가중치 등 반영
    - 도·소매가격 조사도시 및 시장수를 전국 대도시로 확대
      - \* 도매 : (현재) 5지역, 17시장 → (확대) 15지역, 27시장(10개 시장 추가)
      - \* 소매 : (현재) 29개소 → (확대) 70개소(41개소 추가)
- (비축기능 강화) 마늘 등 양념류의 일정비율을 국내산으로 시가 비축하여 김장철, 설 성수기 등 수요가 많은 시기에 방출
  - 수급안정사업 효율화 방안 검토
- (농수산물 우수사례 발굴·전파) 농수산물 유통 우수사례를 발굴·전파하여 유통구조 개선 분위기 확산
  - 우수사례를 확산하고, 평가를 통한 포상제도 도입

# 참고 3

# 농수산물 유통 우수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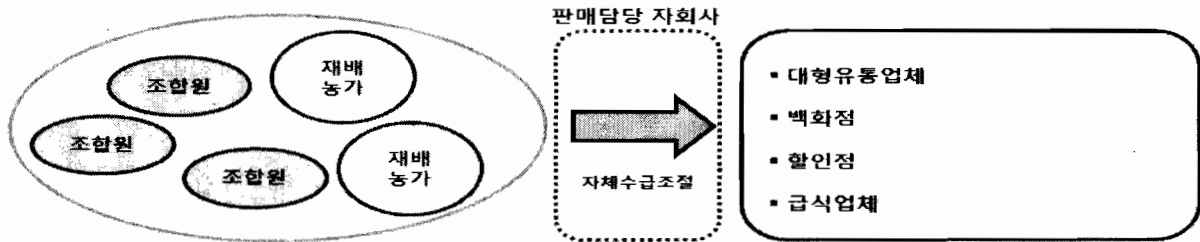
## 1. 하림(닭고기: 수직계열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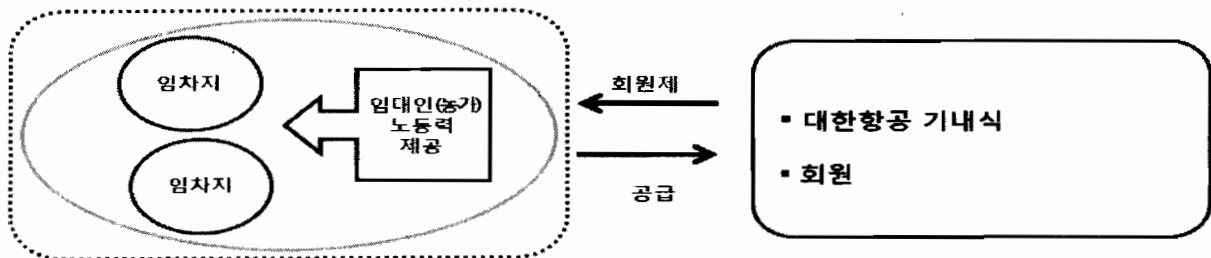
## 2. 도드람 양돈조합(돼지고기: 수평계열화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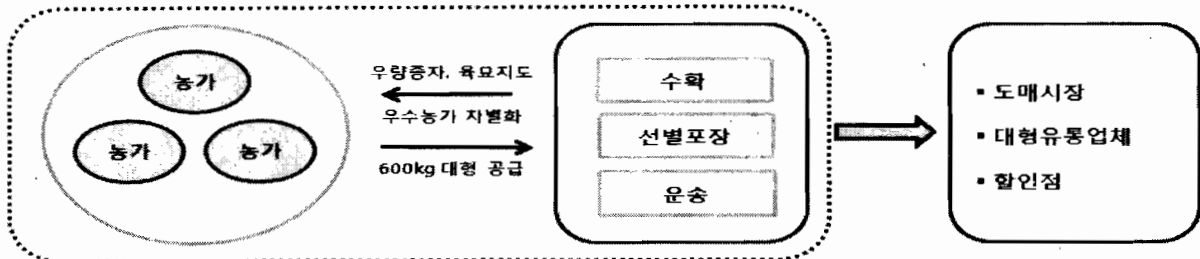
## 3. 참다래 사업단(참다래, 고구마: 생산, 판매기능 분리)



## 4. 나투어(친환경 농산물) 경영성과와 임차료&노임 환원



## 5. 신미네 유통(양파 계약재배)



## IV 향후 추진계획

- 유통구조개선 방안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('11.1)
- 농안법 개정 ('11.1 ~ '11.8)
  - 개정안 초안 마련 및 유통종사자 등 협의 (2월)
  - 개정안 관련 공청회 개최 (3월)
  -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(4월)
  - 규제개혁위원회 등 심의 (5월)
  - 법제처 및 국회 제출 (6 - 8월)
- 예산 변경 및 소요예산 확보 추진
  - 국내산 마늘, 고추 등 비축을 위해 『농안기금운영계획』을 변경 ('11년중, 기재부 협의)
  - '12년 예산 증액 및 신규사업 예산 확보